

한마음도서관

이야기 Hanmaum Library Story

2022년 통권
23



여러분의 꿈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거창군립 한마음 도서관



여러분의 꿈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거창군립 한마음 도서관



발행처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발행년월 2022년 12월
대표전화 055-940-8470
디자인·편집 모하

* 이 책의 저작권은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에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책으로 소통하며 성장하는 도서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HANMAUM
LIBRARY

올해도 역시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도 빠르게 바뀌어 갔지만, 한마음도서관은 단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창의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소통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소장자료의 대출이라는 고전적 역할을 넘어 다양한 문화 및 공동체 활동 중심으로 지역민들에게 지식과 정보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한 해였습니다.

2022년 한마음도서관은 기술 및 정보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사람다운 삶을 지향하는 문화 예술 인프라 구축에 다각도로 변화를 모색하였습니다.

첫째, 군민의 일상 속 삶 가까이에서 도서관이 함께 하였습니다.

일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을 위해 공립작은도서관 2곳, 사립작은도서관 10곳이 운영중에 있으며 이는 사각지대 이용자들의 정보서비스 편의성 제고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최신 IT기술을 통해 무인 기계와 도서관을 연결하여 24시간 도서의 대출과 반납이 이용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을 올해 3개 개설(거창읍, 웅양면, 북상면)하여 총 6개의 스마트도서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독서문화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사회적 독서 가치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책 읽는 군민, 책 읽는 거창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문고전 100권 함께 읽기, 생애주기별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 독서동아리 지원, 포토에세이 제작 등 지역주민의 세대별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5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책 읽는 즐거움을 주는 신달자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 강연, 북콘서트, 수강생 작품 전시 등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서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책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이 되기 위하여 12,400권의 장서확충을 하였습니다. 책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서로 간의 소통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와 공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독서의 선기능입니다.

따라서 좋은 책을 선별하여 열심히 사들이고 책을 읽게 하여 독서활동 증진에 힘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도서관의 지속적 노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한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독서편의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문체부 공모사업 미디어 창작공간과 실감형 체험관 조성, U-도서관 시스템 구축 등 총 1억 5,500만원의 국고를 확보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미래형 도서관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으로 군민 누구나 도서관에 모여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서관 서비스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에 축적된 방대하고 다양한 지식이 서로 융합하고 새로운 문화의 창출기지로 진화할 것을 약속드리며 거창군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02 여는 글

옥진숙 인구교육과장 2

06 신규사업

어디를나 도서관 6

인문고전 100권 함께 읽기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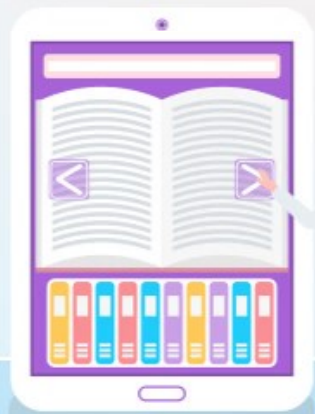
10 톺아보기

도서관 안과 밖 톺아보기 10

12 작은도서관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12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 14



16 독서문화프로그램

영유아 독서문화프로그램 16

어린이 독서문화프로그램 18

성인 독서문화프로그램 19

20 창작활동

브라보 마이 라이프 포토에세이 제작 20

21 고전여행

한심(마음)고전인문학당 21

22 도서관 행사

도서관주간 22

독서의 달 22

10월의 하늘 23



24 글마당

최정애(도서관 이용자) 24

장유리(공공근로) 26

최선자(이야기할머니 회장) 28

문창숙(포토에세이 수강생) 30

32 갤러리

도서관 갤러리 32

34 뉴스

도서관 이렇게 바뀔니다 34

36 진화하는 도서관

2023년 진화하는 도서관 36



38 북스타트

북스타트 38

39 이용안내

도서관 이용안내 39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어디든나 도서관」 운영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은 거리가 멀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군민의 지식 정보 격차 해소 및 누구에게나 편리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디든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도내 최초로** 24시간 비대면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도서관을 도입하였고, 2021년에는 **전국 최초로** 관광지에 스마트도서관을 구축하였습니다.

2022년 현재 **스포츠파크, 승강기안전기술원, 수송대, 보건소, 웅양면, 북상면**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5,000여명의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비대면 독서문화 서비스를 이용 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면단위 독서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원면에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도서관 이용안내

이용대상 : 한마음도서관 회원, 책이음 회원, 한마음도서관 모바일 준회원

이용시간 : 24시간 운영(연중무휴)

도서대출 : 인당 5권, 14일간

도서반납 : 대출한 스마트도서관 또는 한마음도서관 내 무인반납기

※ 반납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 연체된 일수 만큼 대출정지

1호 스포츠파크

거창읍 심소정길 39-36 스포츠파크 국민체육센터 앞



4호 보건소

거창읍 거함대로 3079 보건소 주변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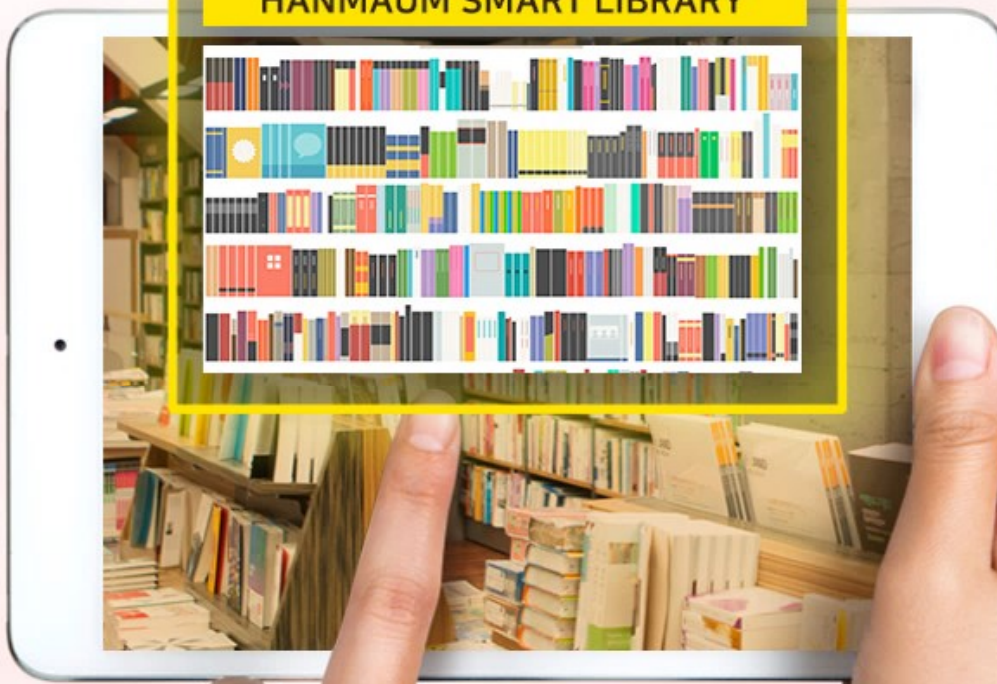


2호 승강기안전기술원

남상면 승강기길8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HANMAUM SMART LIBRARY



5호 웅양면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1431 웅양면사무소내



3호 수송대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06-1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앞



6호 북상면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10 북상면사무소내



책 읽는 군민, 책 읽는 거창

인문고전 100권 함께 읽기

책 읽는 군민, 책 읽는 거창으로 나아가기 위해 “거창군 인문고전 100권 함께 읽기” 독서운동을 5년 동안(2022~2026) 전개할 계획입니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담겨있는 “인문고전 100권 함께 읽기”를 통해 지역 내 독서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군민 누구나 소통·공감할 수 있는 지역 독서공동체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문고전 100권 함께 읽기” 목록 선정을 위해 인문고전선정단을 구성하여 5년 동안 단계별로 확장해 가면서 읽어야 할 100권 목록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비에 부담되는 수강생들을 위하여 고전 100권을 구입하여 종합자료실 서가에 별도로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9월 선포식을 통해 동서양 고전을 통해 인문정신을 배양하고 고전의 가치와 인문학의 본질을 재조명하기 위해 독서운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2022년 3~4월 - 인문고전 100권 함께 읽기 추진 계획 수립
- 인문고전선정단 구성
- 2022년 3~5월 - 인문고전 진행자 양성
- 2022년 4~6월 - 인문고전 100권 최종 목록 선정
- 온라인 선호도 조사 및 인문고전선정단 선정
- 2022년 8월 - 참여자 모집
- 1기 운영(함께 읽기반, 혼자 읽기반)
- 2022년 9월 - 선포식
- 인문고전 진행자 수료증 수여 및 공연



01.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선정



협약식



위천작은도서관 조성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은 「2022년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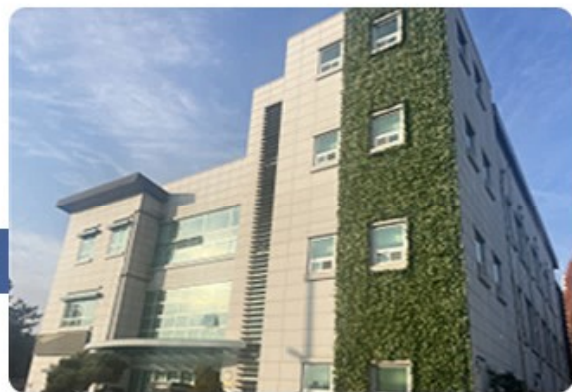
2022년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KB국민은행이 후원하고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8개소 중 거창군이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번 사업은 KB국민은행에서 9천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원받아 업무 협약 체결 후 위천면 복지회관 2층에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었으며, 도서관 내 서가와 열람 테이블 비품 교체를 통해 쾌적한 독서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02. 벽면조경 보수공사 시행



시행(전)



시행(후)

노후화 된 벽면 조경 보수 공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독서 환경을 조성 하였습니다.

03. 웨이브온(Wavve On) 서비스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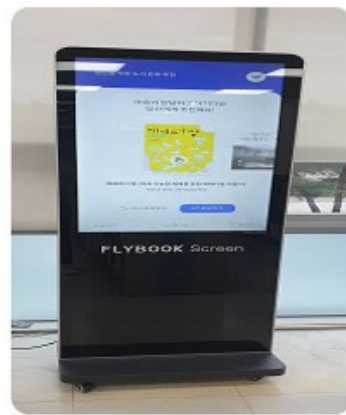
도서관 이용자에게 다양한 최신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5월부터 웨이브온 VOD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전용 '웨이브온' VOD서비스는 20만편 이상의 국내외 영화, 드라마는 물론 실시간 TV시청까지 디지털자료실 내 지정된 좌석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DVD 대출과 함께 VOD서비스 시행으로 최신의 영상정보를 더욱 쉽게 빠르게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04. 공유책방 운영



공유책방은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위치는 도서관 2층 로비에 있습니다. 도서 재활용을 통한 기증 및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소장도서를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공유서가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 중 필요한 책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자율적 도서 공유 서비스입니다. 도서 기증은 종합자료실에서 접수하며, 도서 수령은 수령대장에 서명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05. AI 맞춤형 도서추천 서비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이, 성별, 직업, 기분 관심사 등을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책을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대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맞춤형 도서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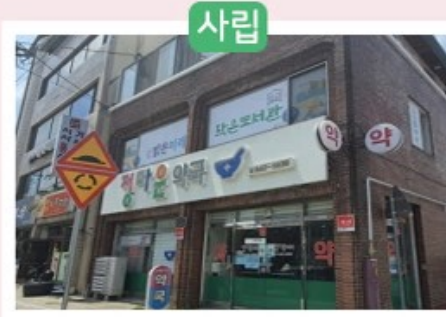
도서관 홈페이지 → 자료검색 → AI 맞춤형 도서추천 → 지금 바로 추천받기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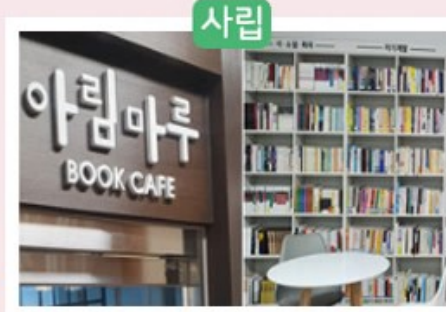
④ 갈지마을꿈꾸는작은도서관

거창군 거창읍 갈지길 6
 운영일 : 화 ~ 일
 휴관일 : 매주 월요일
 운영시간 : 09:00 ~ 22:00



⑤ 밝은미래작은도서관

거창읍 거열로 199(정다운약국 2층)
 운영일 : 월 ~ 토
 휴관일 : 일요일, 법정공휴일
 운영시간 : 월 ~ 금 13:00 ~ 17:00
 토 10:00 ~ 13:00



⑥ 아림마루작은도서관

거창읍 중앙로 97 거창경찰서(지하1층)
 운영일 : 월 ~ 금
 휴관일 :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운영시간 : 09:00 ~ 18:00



⑦ 소만작은도서관

거창읍 소만2길 62 소만주공아파트내
 운영일 : 월 ~ 금
 휴관일 :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운영시간 : 09:00 ~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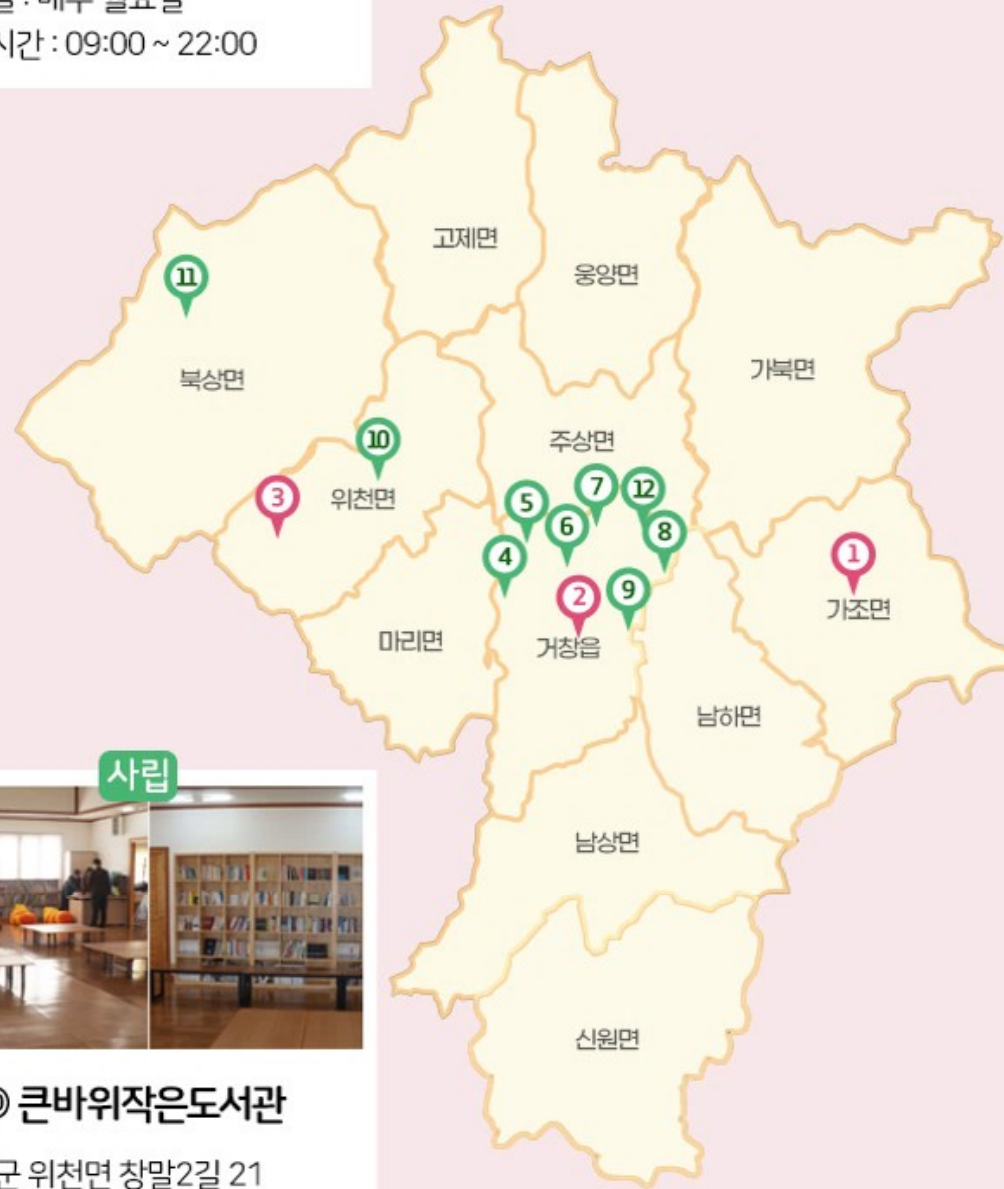
⑧ 참살이작은도서관

거창읍 소만4길 39 순복음교회 6층
 운영일 : 수 ~ 일
 휴관일 : 월, 화요일 법정공휴일
 운영시간 : 09:00 ~ 18:00



⑪ 숲속작은도서관

거창군 북상면 병곡길 447-11
 운영일 : 월 ~ 금
 휴관일 :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운영시간 : 09:00 ~ 17:00



① 가조면작은도서관

가조면 마상4길 62 가조면복지회관
 운영일 : 월 ~ 금
 휴관일 : 토, 일, 법정공휴일
 운영시간 : 9:00 ~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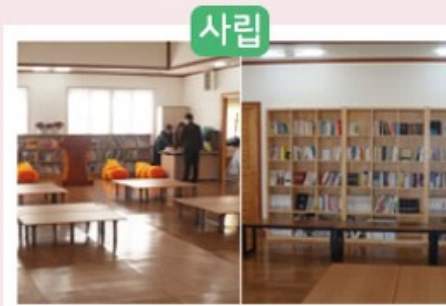
② 글벗나래도서관

거창읍 거함대로4길 60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일 : 화 ~ 일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운영시간 : 평일 09:00 ~ 20:00
 주말 09:00 ~ 17:00



③ 위천작은도서관

위천면 장터길 37 복지회관 2층
 운영일 : 월 ~ 금
 휴관일 : 토, 일, 법정공휴일
 운영시간 : 9:00 ~ 18:00



⑩ 큰바위작은도서관

거창군 위천면 창말2길 21
 운영일 : 수 ~ 일
 휴관일 : 월, 화요일, 법정공휴일
 운영시간 : 09:00 ~ 18:00



⑨ 코아루농작은도서관

거창읍 강남로 266 코아루사무소 2층
 운영일 : 월 ~ 금
 휴관일 :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운영시간 : 10:00 ~ 17:00



⑫ 새마을작은도서관

거창읍 창남1길 40(주공2차아파트내)
 운영일 : 월 ~ 금
 휴관일 : 토, 일요일
 운영시간 : 09:00 ~ 18:00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를 운영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어디서나 도서관 운영을 목표로 현재 12개의 공·사립 작은도서관이 운영중에 있으며, 각 도서관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마을사랑방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작은도서관이 마을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살이
작은도서관

큰바위
작은도서관



숲속
작은도서관



밝은미래
작은도서관



꿈꾸는
도서관





영·유아 독서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인 북스타트 특강을 올해 재개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잠정 중단 되었다가 6월 7일 부터 재개된 북스타트 특강은 영·유아와 보호자가 한 팀이 되어 책 읽기 및 놀이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 하자는 취지의 독서운동입니다



특강 대상은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1단계(생후 8~11개월), 2단계(생후 12~15개월), 3단계(생후 16~19개월), 4단계(생후 20~27개월)로 수준별 강좌가 진행되며, 매주 1회씩 8회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책을 읽어주고, 책 읽기가 끝나면 관련된 주제로 유아의 발달을 돕도록 오감을 이용한 놀이를 진행합니다.



책체험 버스 '같이 활짝'



책 체험버스는 책과 독자를 이어주는 이동식 디지털 도서관 형태의 25인승 미니버스로, 독서문화 취약지역에 방문해서 전자책, AR북, VR, 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태의 출판콘텐츠 체험이 가능합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체험행사는 거창 창포원을 찾은 가족 단위의 방문객 50여 명에게 다양한 출판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어린이동화구연 체험관 운영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5월부터 5~9세 어린이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활동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이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가상의 캐릭터와 동요·유희 등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며, 총 51회 391명이 참여했습니다. 어린이동화구연 체험관은 독서 흥미 유발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날 운영

"책 읽어주는 날"은 3~7세 어린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과 더불어 도서관과 친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주 토요일 11시 도서관 1층 유아방에서 진행됩니다. 책 읽어주기는 한마음그림책 회원과 이야기할머니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8회 200명이 참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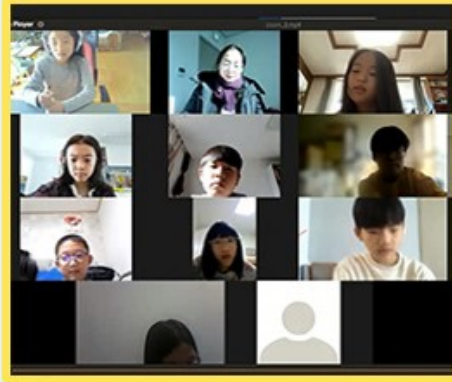


초등북스타트 독서감상화 전시



관내 17개 초등학교 1학년생 378명이 6월부터 8월까지 43종의 북스타트 그림책을 읽고 느낀점을 그림으로 그려 전시하는 행사이며, 총 330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프라인 전시를 포함하여 PC와 모바일에서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한마음도서관 홈페이지 내 독서문화 코너에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



동화작가와 함께하는 글쓰기



하브루타 책놀이



어린이 고전읽기



숲밭줄놀이



감성클래식



생각쑥쑥 동화놀이

성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보타니컬아트



클래식 A to Z



주역



싱잉볼명상



손맛 감성퀼트



사주명리로 만나는 인문학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영·유아, 어린이, 성인,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멀리 나가서 힘들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도서관을 이용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스스로 성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을 통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단순한 문화적 욕구 충족을 넘어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로
더 풍성하고 지적·문화적 수준을 높여가고 있으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문화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자아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통의 즐거움을 전파하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포토에세이' 제작

2021년에는 60~80세 대상으로 포토 자서전 제작을 올해는 중·장년 대상으로 '브라보 마이 라이프 포토에세이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사업으로 내 인생의 첫 번째 책 '포토에세이'를 출간 하였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 '브라보 마이 라이프 포토에세이 제작' 프로그램은 매주 2회 2시간씩 총 48회에 걸쳐 '에세이 쓰기'와 '포토 제작'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수강생 10명의 포토에세이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11월 24일 출간기념회를 열어 수강생 및 가족, 지인 등 50명과 함께 표제작 낭독, 소감 발표, 수업 영상, 기념 촬영 순으로 뜻깊은 시간을 나누었고, 출간된 포토에세이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도서관 2층 로비에 전시하여 볼거리를 제공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역주민의 새로운 교육의 욕구에 부응하고 차별 없고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자체적 창작활동 사업에 주력해 나갈 것 입니다.



한心(마음) 고전인문학당



도서관을 기반으로 고전문학 '함께 읽기'를 통한 지역 독서공동체의 소통과 유대 강화를 목표로 2017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의 '함께 읽기'는 교양·지혜뿐만 아니라, 배려, 공감, 환대 등 민주주의 가치를 고양시키며, 민주사회일수록 시민의 문해력이 뛰어나고 독서량도 많다고 합니다.



운영기간은 3~12월까지 1기와 2기로 나누어 각 10회씩 둘째·넷째 수요일 저녁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기 토론도서로 '셰익스피어 희극 6편'과 2기 토론도서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선정했으며, 아는 만큼 보이는 고전 문학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11월경, 고전문학을 함께 읽은 수강생과 함께 고전문학 작품 세계로 떠나는 문학 기행도 결들인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영주 부석사와 소수서원, 무섬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따라서 한心(마음)고전인문학당은 고전 문학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 증진에 기여하며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토론 문화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주간

제58회 '도서관주간' 행사는 올해의 공식주제 '도서관, 책과 당신을 잇다'란 주제로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널리 알려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도서관 이용을 도모하는 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매년 4월에 진행되는 독서 문화 캠페인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민들에게 삶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는 새롭게 기획한 봄에 취하고 클래식에 취하는 '봄클음악회'와 어린이들을 위한 '책 읽어주는 마술사의 마술책방' 공연도 마련하여 도서관 문화 창출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동 문학계의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이수지 작가' 그림책 전시와 '2배로 책 대출 한DAY' 등 도서관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도서관주간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독서의 달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군민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며 도서관 이용 및 독서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월호 잡지배부, 신달자 시인 초청 특강, 필사공책 교환행사, 책 체험버스 운영, 초등북스타트 독서감상화 전시, 한마음독서동아리 토론회, 모범다독자 선발 및 시상, 테마 도서 전시, 보타니컬&힐링퀼트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 전시회 등 책을 기반으로 나눔과 공유를 실천하는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10월의 하늘

2022년 '10월의 하늘' 행사 진행관으로 선정되어 10.29. (토) 과학자들의 재능기부 도서관 과학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월의 하늘 행사는 과학,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과학이 주는 즐거움을 맛보고 재능기부를 통한 '나누는 사회' 문화 선도를 위한 취지로 마련한 행사입니다.



거창군에 지원하신 재능기부자는 박대영(국립과천과학관천문우주팀장)과 이정원(르노코리아 중앙연구소 프로젝트팀 장)으로 관내 초등학생과 학부모에게 인기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도서관



최정애(도서관 이용자)

직장인들의 시간은 아무래도 주 단위로 흘러가는 것 같다. 나는 지금도 월화수목금 전일, 토요일 반일 근무라 토요일 오후부터 휴일에 들어간다. 집에서 가까운 한마음도서관은 주중에도 저녁 늦게까지 열려 있어 퇴근 후에 갈 수는 있지만,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면 얼른 집에 들어가 밥도 먹고 쉬고 싶은 터라 급할 때 말고는 평일에 자주 찾지는 않게 된다. 나의 도서관 나들이는 대부분 토요일 오후. 바쁠 때는 미리 찾아 두었던 책만 뽑아 대출해서 오기도 하지만 여유가 있을 때는 좋아하는 작가, 관심 있는 주제에 따라 천천히 서고를 거닐면서 골라보기도 한다. 한 달에 한 번은 신청해두었던 책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가서 잘 버려진 새 책을 받아드는 즐거움도 누린다. 서고에서 나를 사로잡는 미지의 세계가 눈에 띄면 창가에 앉아 책을 펼치고 사진 속의 장소들로 잠시나마 들어가 버릴 때도 있다. 그곳은 숲속이기도 하고 우주이기도 하고, 때로 시베리아의 광활한 벌판이기도 하다. 예상대로 너무 짧은 책 속 여행에 미련이 남아 그 책을 빌리고, 집에 가서도 다시 펼쳐 볼 수 있다는 느긋한 기대감으로 도서관을 나선다. 간혹 시간이 맞으면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 짧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그럴 때면 늘 무슨 책을 빌렸는지, 요즘 관심사는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친구에게 오늘 빌린 책을 보여준다. 내가 읽는 책이 곧 나의 삶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공유하니까. 이러구러 마음은 '토요일 오후와 책'의 조합으로 한껏 흥분하게, 대부분 팔은 묵직한 채로 도서관 문을 밀고 나서서 집으로 가는 길.



그날은 계획적으로 두껍지 않은 책 두 권만 빌려서 나왔다. 햇살 좋은 토요일 오후, 집까지 가볍게 걸어가고 싶었다.

도서관 앞 주목나무 빨간 열매랑 인사하고 초등학교 뒤쪽 가로수인 벗나무랑 느티나무 줄기를 손가락으로 스치며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 어느 곳에 도착해 있다. 처음 지나게 되었을 때 우리 동네 골목 안에 이런 곳이 숨어있었나 싶어 신기하고 놀라웠던 공간. 작고 작은 미니 공원, 마치 어느 집 뜨락 같은 그 곳이 나타났다. 약간 너른 집 마당 정도 되는 공간, 담장 대신 느티나무가 둘러서 있고 그 아래 몇 개의 나무의자. 주변을 둘러보면 나지막한 집과 골목뿐인 그 곳에서, 나는 토요일 오후의 책 읽기를 시작했다. 몇 번인가 지나치면서 꼭 해보고 싶던 일이었으니까. 나무 의자에 앉아 사방을 둘러보니 그즈음 가장 아름답게 보이던 느티나무 단풍이 한잎 두잎 훑날리고, 남은 햇살은 아직 온기를 잃지 않은 채 내 어깨에 걸려 있어 좋았다. 고요한데 적막하지 않은 공간과 시간. 간혹 얇은 바람이 마른 나뭇잎을 스적이는 소리가 고요를 밀어내는가 하면 어느새 다시 가득 차오르는 고요. 사이사이 책장 넘기는 소리. 그때 넘어가던 책장은 이유리님의 「기울어진 미술관」이었던가, 어쩌면 다산의 현손 정규영님이 엮고 지은 「다산의 한평생」이었던 것도 같다. 그날 내가 읽었던 책이 무엇이었던, 막힌 데 없이 사방으로 뚫려있어도 무언가 가득 채워지던 그 느낌은 다르지 않다.

나를 받아주었던 그 공간과 시간, 어느새 햇살이 빗겨나고 낙엽이 사락사락 쌓이고, 나는 일어나 공기의 커튼을 열고 나온다. 이제 책을 접고 집으로 가는 길. 스스로 특별했던 그 순간은 '느티나무 아래서 책과 함께 했던 가을 오후'의 기억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내게 책은 스승이고 벗이다. 함께 세상을 살고 세월을 겪는다. 책과 더불어 문학을 나누고 예술을 탐하고, 자연을 배우고 사회를 깨친다. 유쾌한 상상에 자극 받고, 슬픔을 공감하면서 치유를 얻는다. 누군가 나에게 "세상 모든 사물 중에 너와 가장 가까웠던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아직은 책 말고 다른 답을 생각할 수 없다. 갖고 싶은 모든 책을 소유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이 시대에, 멀지 않은 곳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지금 내 삶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다.

“도서관에 들어오면 내가 왜 여기에서 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장유리(공공근로)

17세기 프랑스의 여류 서간문 작가였던 세비네 후작 부인(Marquise de Sévigné, 1626-1696)의 말이다. 그녀가 30년간 딸에게 보냈던 편지들은 그 안에 담긴 재치와 생생함을 인정받아 서간집으로 출간된 후, 당대는 물론 3세기가 지난 현재까지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있다. 그녀가 쓴 편지의 문장 하나하나가 유려하다고 높이 평가받는 것은, 도서관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싫었다는 그녀의 말처럼 늘 책을 가까이한 덕분이었으리라. 비단 세비네 후작 부인뿐 아니라, 동서고금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책, 그리고 독서는 많은 지식인과 유력자, 더 나아가 대중의 흠모와 예찬을 받아왔다. 방대한 지식과 풍부한 간접 경험을 집약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발명품은 인류 역사상 책이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하는 나 역시 독서에 무척 호의적이다. 그렇다면 책 읽기를 즐겨 하는 이들에게 책이 가득한 도서관에 가는 일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열정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지난 5개월간 이곳 한마음도서관에서 그 열정을 피부로 생생히 느끼고 있는 중이다.

내가 처음 도서관에 왔을 때는 녹음이 푸르고 매미 소리가 한창인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어린이자료실로 첫 출근을 하게 됐는데, 아직 손에 익지 않은 업무를 하며 자료실 데스크에 앉아있던 나의 눈에 불현듯 들어온 것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부모님과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한마음도서관에서는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북스타트(Book-start) 특강을 제공하고 책 꾸러미를 선물하는데, 특강 참여를 위해 자료실에 방문한 부모님과 아이들이었다. 품에 안겨 오는 아이들, 손을 잡고 오는 아이들, 종횡무진 자료실 안을 누비며 구경하는 아이들까지 각양각색이었으나, 한결같았던 것은 기대감에 빛나는 푹푹한 눈망울과 찹쌀떡같이 말캉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볼에 띤 웃음이었다. 특강이 진행되는 동안 동요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말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또 수업을 마치고 밝은 얼굴로 인사에 화답하며 자료실을 나서는 그들을 배웅하고 있노라면,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북스타트의 취지가 무척 잘 실현되고 있음이 분명했다.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추억으로 평생 남게 될 것이기에. 북스타트 특강 외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들이 함께하는 ‘동화구연 체험’,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책 읽어주는 날’ 역시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많은 참여가 이뤄져,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의 얼굴에 슬며시 지어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던 기억이 또렷이 남아있다. 늘 다디단 즐거움이 넘치는 어린이자료실이었다.

불어오는 바람이 선선해지고 청명한 하늘이 높은 가을이 다가오며, 나는 종합자료실과 디지털자료실 근무도 하게 됐다. 종합자료실에 근무하며 놀랐던 점은 이용자 편의적인 서가 배치였다. 작은 글씨가 보기 불편한 고령 이용자를 위한 <큰글자도서> 서가, 거창군의 문화와 역사, 지리 등에 대한 자료와 거창군 출신 향토 작가의 책이 비치된 <향토자료> 서가, 책 읽는 군민, 책 읽는 거창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문고전 100권 함께 읽기’ 운동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인문학도서> 서가, 다문화 가정 이용자를 위한 <다문화도서> 서가를 보며 이용자를 위한 배려가 듬뿍 담겨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더하여 종합자료실 앞 한쪽에 마련된, 책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유책방 역시 많은 이용자의 호응을 얻고 있었다. 한편 1층 디지털자료실 옆에는 북카페가 있는데, 조용히 휴식을 취하거나 책을 읽는 이용자,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이용자, 학습에 열을 올리며 집중하는 이용자 등 늘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어떤 날은 이용자 한 분이 “이런 공간이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말을 건네셨다. 북카페에서 공부를 하다가 PC가 필요하면 디지털자료실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인쇄·복사를 하고 싶을 때는 복합기를 사용하면 되니 이보다 더 편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나는 “그러게 말입니다. 무척 다행이죠!”하고 고개를 주억거리며 깊이 공감했다. 도서관 구성원으로서 뿌듯함이 가슴 한편에 잔잔히 퍼지던 순간이었다.

여름에 처음 온 한마음도서관에서 어느덧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낮과 밤, 하루와 하루, 한 달과 한 달, 계절과 계절이 지나도 여전히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하고, 이용자들의 생기와 열정을 머금은 한마음도서관은 늘 활기찬 가운데 거창군의 거점 문화공간으로 그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모아둔 곳이 아니다. 책 하나하나에 담긴 인생과 세계, 지식과 역사가 교차하는, 또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며 다시 후세에 전하는 뜻깊은 과정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양질의 문화강좌와 행사가 1년 내내 열리고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 한마음도서관에서 많은 분이 그 과정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나는 염원하고 있다. 도서관을 찾아 주시는 분들 모두 세비네 후작 부인과 ‘한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소망도 함께. “도서관에 들어오면 내가 왜 여기에서 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포토에세이와 열애를 마치고 즐거이 돌아본다.



최선재(이야기할머니 회장)

내 인생의 후반기, 목하 평생학습중이다.

거창 평생학습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나의 인생 후반기를 즐거움에 흠뻑 빠지게 하여 스물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다.

여러 학습을 경험하는 중에 한마음도서관에서 포토에세이 반을 모집한다는 정보를 듣고 ‘포토에세이’? 처음 접한 생소한 단어가 궁금했다.

작년에 학습센터에서 작은 수필집에 동참했던 경험이 용기가 되어 신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수업과 겹치는 바람에 부득불 한 달 늦게 입문 하였다.

늦깎이로 더듬거리며 포토에세이를 시작하여 기능들을 배워 가니 새롭고 신기한 즐거움이 쏙쏙해서, 컴퓨터 속에서 포토 에세이랑 열애를 시작했다.

글을 쓰고, 글에 맞는 사진을 찍으러 통영에 가고 부산을 가고, 바다와 산을 누비며 작품 사진을 만들려 애썼다.

사진에 고수인 지인의 도움도 받으며 작업을 시작하였다.

열대야를 새워가며 글을 쓰고 작업하고, 수정하여 덧붙이고, 삭제하고를 거듭거듭 하니, 대용량 사진 파일에 컴퓨터도 몸살이 나고 나도 몸살을 앓았다.

백여 페이지, 한 권의 책이 완성하기까지 만만치 않은 산고를 치렀다.

다섯 달, 그동안의 열애로 흰머리는 더 늘고 뺨살도 늘고, 뻥뻥했던 머리숱은 더욱 뻥뻥했으니 어찌할꼬!

그러나 새로운 것들의 경험과 배움이 족하고, 나의 지식 같은 책이 열매가 되니, 아쉬움은 있으나, 버젓하여 흐뭇하다.

거창한마음도서관은 영유아에서 노년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명품 미래 교육도시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작년에도 인생을 돌아보는 노년들의 자서전을 출판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니 한마음도서관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크다.

금년에도 포토에세이, 운영으로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제 나의 일상, 도서관 나들이가 일상이 되었고 단골 고객이 되었으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오!

어떤 이는 늙어감을 익어간다고 했던가? 나의 황혼, 익어가는 길에 한마음도서관이 있으니 브라보 마이 라이프(bravo my life)가 되었다.

함께하며 각자에게 주어졌던 시간 속에서, 소중한 열매를 맺은 열 분의 동지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며 지도하신 두 분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거창군민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는 고마운 거창평생학습과 한마음도서관의 모든 사업에도 힘찬 박수를 보내며 ‘bravo we life’~ 감사합니다.



포도에세이를 발간하고



문창숙(포도에세이 수강생)

지난해 육십갑자를 다 돌고 다시 신축년을 맞았다.
이즈음에서 한번쯤 지난날들을 정리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막막했었다.
그즈음 한마음 도서관에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 포토 에세이 제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되어 등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글을 쓴다는 것이 왠지 두려웠고, 말과 생각은 편하지만 글로 옮겨 표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런데 에세이 수업을 받다보니, 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도 회가 거듭될수록 점점 글솜씨가 늘어가는 것이 눈에 보였다.
내가 쓴글에 사진을 삽입하고, 아니면 사진에 맞는 글을 써서 다시 편집하는 과정들을 거쳐, 서툴지만 나의 책이 만들어졌다,
책을 만들면서 지나간 사진들을 정리하다 보니, 그때의 생각과 다짐들이 새록새록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다.
그때 하던 후회를 지금도 똑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도 그때의 생각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같은 부분도 있었다.
아무튼 지난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앞으로 남은 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 너무 좋았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한 한마음도서관 관계자님이 너무 고맙다.
내가 처음 한마음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은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이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에 직장생활 하는 며느리를 대신해서 내가 손자를 데리고 1단계부터 수업에 참여하였었다.
유아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율동과 노래도 같이 하고, 만들거나 꾸미기도 하는 과정이었는데, 아이들이나 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책읽는 걸 좋아하는 손자를 보면, 그때 기저귀가방까지 들고 도서관에 다닌 것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흐뭇하다.
그러면서 인형극과 뮤지컬 등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을때면 도서관을 찾곤 했는데, 손자와 인형극을 보던 다목적실에서 내가 수업을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었다.
그때도 ‘도서관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었다.
옛날 우리가 생각하던 도서관은 책만 빌려 보던 곳인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나 역시 예전에는 밤새워 책을 읽었던 때도 있었는데, 컴퓨터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책을 읽는 것 보다는 웹서핑을 더 많이 한 것 같다.
그래서 도서관에 갈 일이 없었는데, 손자 덕분에 한마음도서관에 처음 가보게 되었고, 또 이번처럼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까지 하게 되었다.
이번에 수업을 받으면서 도서관에 드나들다 보니 이용자들에게 좋은 환경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자연히 눈에 들어와서 기분 좋게 다녔던 것 같다.

포도에세이 제작을 함께 한 동기생들,
나를 보인다는 부끄러운 작업에 선뜻 용기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분들
멀리서 항상 1시간 전에 도착해 사진 편집을 도와주신 사진작가님.
글쓰기에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에세이 쓰기 선생님.
그리고 한마음도서관 관계자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책과 문화를 즐기는 생생한 우리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좋은 책을 함께 읽고 성장하는 행복한 도서관을 목표로
건강한 독서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이 좋아! 책이 좋아!



책과 사람 도서관을 잇다

아이 좋아! 책이 좋아!



책과 사람 도서관을 잇다



2023년 한마음도서관 이렇게 바뀝니다.

더 나은 미래,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자료 확충

주말 자료실 운영시간 연장

- ☑ 운영시간 : (기존) 09:00~17:00 → (변경) 09:00~18:00
- ☑ 대상 : 종합자료실, 어린이·모자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자료 구입

- ☑ 신간도서 및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 : 3,500권(49,000천원)
- ☑ 이용자 맞춤형 특성화 도서구입 : 1,500권(30,000천원)

이용환경 개선

자유열람실 의자 교체

- ☑ 사업목적 : 장시간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열람환경 조성
- ☑ 사업비 : 18,400천원
- ☑ 사업기간 : 2023. 3. ~ 5.
- ☑ 사업내용 : 자유열람실 의자 115개 교체

자유열람실 무인좌석발권기 교체

- ☑ 사업목적 : 다기능 좌석발권기 교체로 이용자 편의제공
- ☑ 사업비 : 11,000천원
- ☑ 사업기간 : 2023. 3. ~ 5.

시청각실 노후장비 교체

- ☑ 사업목적 : 비디오 프로젝터 및 노트북 교체로 안정된 강의 환경 조성
- ☑ 사업비 : 9,000천원
- ☑ 사업기간 : 2023. 2. ~ 5.
- ☑ 사업내용 : 비디오프로젝터 1대, 노트북 2대 교체

인문의 힘을 키우는 거창형 독서문화 구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 영유아 대상 : 책 읽어주는 날(매주 토요일 / 1개 프로그램)
북스타트 특강(3월~12월 / 12개 프로그램)
어린이동화구연체험관(1~3월 / 1개 프로그램)
- ☑ 아동 대상 : 방학특강(1월, 8월 / 9개 프로그램)
토요특강(6~12월 / 6개 프로그램)
- ☑ 성인 대상 : 독서동아리(3~12월 / 4개 프로그램)
한심(마음)고전인문학당(3~12월 / 2개 프로그램)
상·하반기 문화강좌(4~12월 / 10개 프로그램)
포토에세이 제작(4~11월 / 2개 프로그램)
인문고전 100권 함께 읽기(1~12월 / 6개 프로그램)

도서관 행사 계획

군민의 수요를 반영한 독서문화서비스 확대

- ☑ 독서생활화를 위한 도서관주간(4월) 및 독서의 달(9월) 행사
- ☑ 문화향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시, 강연, 공연 등

어디든 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위천작은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 ☑ 사업목적 : 도서관 자동화를 통한 효율적인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 제공
- ☑ 사업비 : 30,100천원
- ☑ 사업기간 : 2023. 1. ~ 12.
- ☑ 사업내용 : 도서전산화용역, 도서관리시스템(게이트, 서용리더기) 구입

작은도서관 도서 지원

- ☑ 공립작은도서관 [3개소] → 1개소당 300여권 지원
- ☑ 사립작은도서관 [9개소] → 신간도서 구입비 지원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 ☑ 사업비 : 50,000천원
- ☑ 사업기간 : 2023. 1. ~ 12.
- ☑ 지원인력 : 2명
- ☑ 사업내용 : 작은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 운영 활성화 위한 인력 지원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 ☑ 사업목적 : 가까운 도서관에서 원하는 도서대출 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
- ☑ 대상 : 한마음도서관 ⇔ 공립작은도서관(3개소) ⇔ 스마트도서관(6개소)



2023년 진화하는

한마음도서관

한마음도서관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사업에서 도서관 3개 분야가 11월 14일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U-도서관 시스템 구축 5,500만원,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5,000만원, 실감형 체험관 조성 5,000만원**으로 총 1억 5,500만원의 국고를 확보하여 한마음도서관의 2023년은 새로운 변화를 찾는 도서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미디어 창작공간과 실감형 체험관 조성 사업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거창군이 선정되었으며, 특히 U-도서관 시스템 구축 사업은 3년 연속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한마음도서관은 선정된 국비 1억 5,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억 2,000만원으로 **'2023년 군민과 함께 하는 미래 도서관 운영'** 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군민들이 스마트한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U-도서관 시스템 구축 사업

24시간 무인으로 도서를 대출·반납하는 스마트도서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거창군은 2019년 도내 최초로 U-도서관을 도입하였고, 2021년에는 전국 최초로 관광지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거창군스포츠파크, 승강기 안전기술원, 수송대, 보건소, 웅양면, 북상면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면단위 독서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신원면에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사업

군민 누구나 방송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통합 방송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마음도서관 3층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가상현실(VR, AR)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조성하여 군민의 미디어 창작 역량을 강화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감형 체험관 조성 사업

2014년 한마음도서관에 도입한 동화구연 체험관을 전면 리모델링 하여 최신 기술로 더욱 선명하고 실감나는 동화 속 체험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동화구연 체험관은 올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30개소, 400명의 원생들이 체험관 활동을 체험했으며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도서배달 서비스 확대 시행

거창군민의 독서문화 활성화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36백만 원을 확보하여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거창군민을 위한 독서 편의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맘(MOM)편한 도서배달 서비스 대상(7개월 이상 임산부 ~ 36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자) 자에게 도서 배달 및 도서 회수를 도서관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그리고 읍·면 찾아가는 도서 배달 서비스도 택배 배달로 시행하는 등 거창군민을 위한 균등한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도서 대출
(도서택배)

도서 반납
(해당 읍·면 사무소)

북스타트(Book-start)★

북스타트(Book-start)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아들에게 그림책을 나눠 주고 책과 함께 놀게 함으로써 독서를 평생습관으로 만들어가는 문화운동입니다.

북스타트 회원혜택

- 책꾸러미 배부
(그림책 3권, 독서가이드, 가방 등)
- 북스타트 회원을 위한 북스타트 특강 운영

북스타트 대상

- 대상 : 거창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영·유아
 - 북스타트 : 만0~1세
 - 북스타트 플러스 : 만2~3세
 - 북스타트 보물상자 : 만4~6세(초등학교 취학전)
- ※ 출생연도로 나이를 구분합니다.
- ※ 기존회원은 나이에 따라 다음 등급 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북스타트 참여방법

- 가입방법
 - 방문신청 : 1층 어린이·모자 자료실 방문(보호자 신분증 필요)
 - 온라인신청 :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홈페이지 → 서비스 → 북스타트 회원가입
- 신청비용
 - 전액무료
- 책꾸러미
 - 도서관 방문 시 : 1층 어린이·모자 자료실 현장 배부
 - 홈페이지 신청 시 : 택배로 배송(1주일 정도 소요)

2022년 등록 회원 : 188명 (기준일 : 2022.10.31.현재)

북스타트 종류	북스타트 (1단계)	북스타트 플러스 (2단계)	북스타트 보물상자 (3단계)
가입대상	만0-1세	만2-3세	만4-6세(초등 취학전)
신청인원	56명	52명	80명



도서관 이용안내

이용시간

시설명	월,화,수,목 (평일)	금,법정휴일 (정기휴관)	토,일 (주말)
종합자료실	09:00~22:00	휴실	09:00~18:00
어린이자료실	09:00~18:00		09:00~18:00
디지털자료실	09:00~18:00		09:00~18:00
자유열람실, 북카페	09:00~22:00	09:00~18:00	09:00~22:00

도서 대출/반납

- 대출권수 : 1인 5권
- 대출기간 : 14일(반납예정일 이내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 가능)
- 연 체 시 : 연체일수만큼 대출정지
- 참고사항
 - 장기연체(7일 이상 연체) 3회 시 6개월 추가 정지
 - 동일 도서의 재대출은 7일 이후에 가능(반납 당일 재대출 불가)
 - 반납연기는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940-8470)로 요청 가능
 - 도서 분실 및 훼손 시 동일자료로 변상

도서 야간대출

- 신청시간 : 09:00 ~ 17:00(자료실 운영 시간 내)
- 대출시간 : 18:00 ~ 22:00
- 대출장소 : 평일(2층 종합자료실) / 주말(행정실)
- 신청방법
 - 자료 소장 및 대출가능 여부 확인
 - 각 자료실로 전화신청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 접수
 - 수령 시 한마음도서관 회원카드 확인 후 대출

예약도서 신청

- 관외대출 중인 자료에 한하여 반납 시 우선 순위로 도서대출 가능
- 예약신청 → 예약 도서 반납 시 SMS 발송 → 문자 수신 후 3일 이내 대출

회원가입방법

- 한마음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회원가입 PC이용
- 회원발급 데스크에 신분증 제시 - 직원확인
- 회원정보입력
 - 만14세 이상(본인인증)
 - 만14세미만(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 회원증 발급 및 수령

